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2. 7. 1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
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, 전 정부 정책을 의도적
으로 지우려는 시도가 전혀 아님

(7.19일 한국일보 「반도체인력 양성한다더니, 고급 인력 육성 예산
36% 줄었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과기정통부가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36.3% 삭감
(3,500→2,228억원)한 것은, 윤석열 정부가 2,228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
전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 R&D
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,
 - 전체 예타 통과 사업의 평균적인 예산반영 비율보다 높은 수준인
63.7%의 예산이 편성되었음
-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것은 아니며, 전 정부 정책인 ‘K반도체
전략’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가 전혀 아님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

최우혁 과장 (044-203-4270) 라정인 사무관 (044-203-4276)